

##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전통적/권위적’ 압도적!

한국 사회가 점차 세분화·파편화되며 다양한 형태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회 공동체의 결속과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기독교인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의 인식과 행동을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최근 우리 연구소가 한국교회탐구센터, 21세기교회연구소와 공동으로 ‘기독교인 신앙 유형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독교인 유형 분류를 위해 신앙 유형 검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격유형검사(MBTI)를 벤치마킹하여 진행한 방법으로 성격이 다른 4쌍의 변수를 평균 점수에 따라 이분법 차원으로 분류하여 총 16가지 신앙 유형으로 도출했다.

이번 ‘한국의 기독교인 유형 분류 조사’ 결과를 통해 교회 내 다양한 신앙 유형이 존재함을 인식하여 성도들 서로 간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편 목회자들은 각 유형에 맞는 사역과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기독교인 유형 분류 조사

###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4년 9월 20일 ~ 9월 27일 (8일간)
조사 주체	21세기교회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신앙 유형 도출 과정 및 유형별 특징

-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을 유형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성격이 다른 신앙 변수, 전통적-현대적, 초월적-현실적, 공동체적-개인적, 권위적-탈권위적을 각각 분류할 수 있는 4~5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MBTI 성격유형검사에서 E(외향형)-(내향형)으로 나누듯이 4쌍(8개)의 신앙 차원(전통vs현대, 초월vs현실, 공동체vs개인, 권위vs탈권위)을 만들고, 이를 조합하여 궁극적으로 총 16개의 신앙 유형을 도출했다.

[그림] 신앙 유형 도출 전개도\*

	전통-현대적 신앙	초월-현실적 신앙	공동체적-개인적 신앙	권위적-탈권위적 신앙
관련 질문 문항 구성	① 성경의 무오성 ② 초자연적 기적 ③ 과학과 신앙의 충돌 ④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 되심 ⑤ 전통과 현대 문화	① 신앙 성장: 영성 훈련과 실생활 훈련 ② 하나님 나라: 현재와 사후 ③ 신앙의 목적: 구원/영생과 예수님 닮기 ④ 신앙적 실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회적 책임 ⑤ 세상에서의 행동: 전도와 사회봉사	① 교회의 신앙 활동과 개인적 신앙 생활 ② 공동체의 유익과 자신의 신앙 세우기 ③ 소그룹 참여와 개인적 경건훈련 ④ 교회의 일정과 개인 일정	① 교회의 방침과 나의 판단 ② 목회자의 의견과 나의 판단 ③ 직분제도의 필요성 여부 ④ 교회 연장자의 의견과 나의 의견
	전통 vs 현대	초월 vs 현실	공동체 vs 개인	권위 vs 탈권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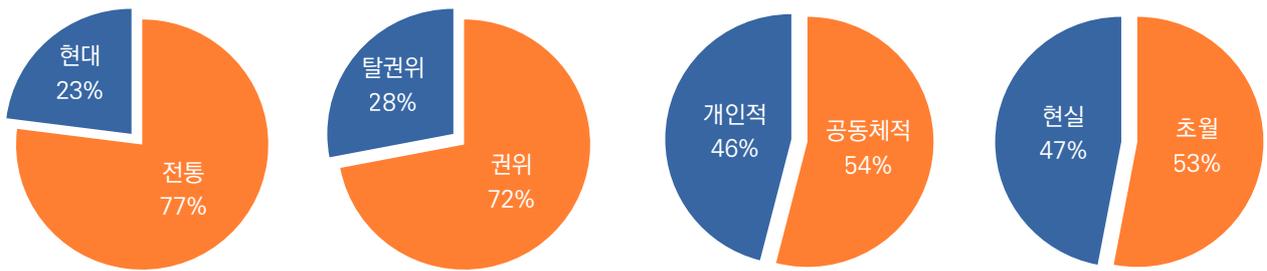
\*각 설문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 유형분류를 위한 세부 문항은 보고서 내 설문지 문1~10, 문15~22 참조할 것. (보고서는 후원자들에게 추후 발송 예정임)  
 (문1~5: 전통적-현대적 신앙, 문6~10: 초월-현실적 신앙, 문15~18: 공동체적-개인적 신앙, 문19~22: 권위적-탈권위적 신앙)

# 01

## [신앙 유형 구분과 특성]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유형, '전통적/권위적' 압도적!

- 4쌍의 신앙 변수들을 살펴보면, 전통과 현대적 신앙의 경우 '전통적 신앙'이 77%로 압도적으로 높고, 권위와 탈권위적 신앙에서도 '권위적 신앙'이 72%로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초월 신앙'과 '현실적 신앙'은 각각 53%,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공동체적 신앙'(54%)은 '개인적 신앙'(46%)보다 8%p가량 높았다.
-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이 전반적으로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신앙 유형 비율 (기독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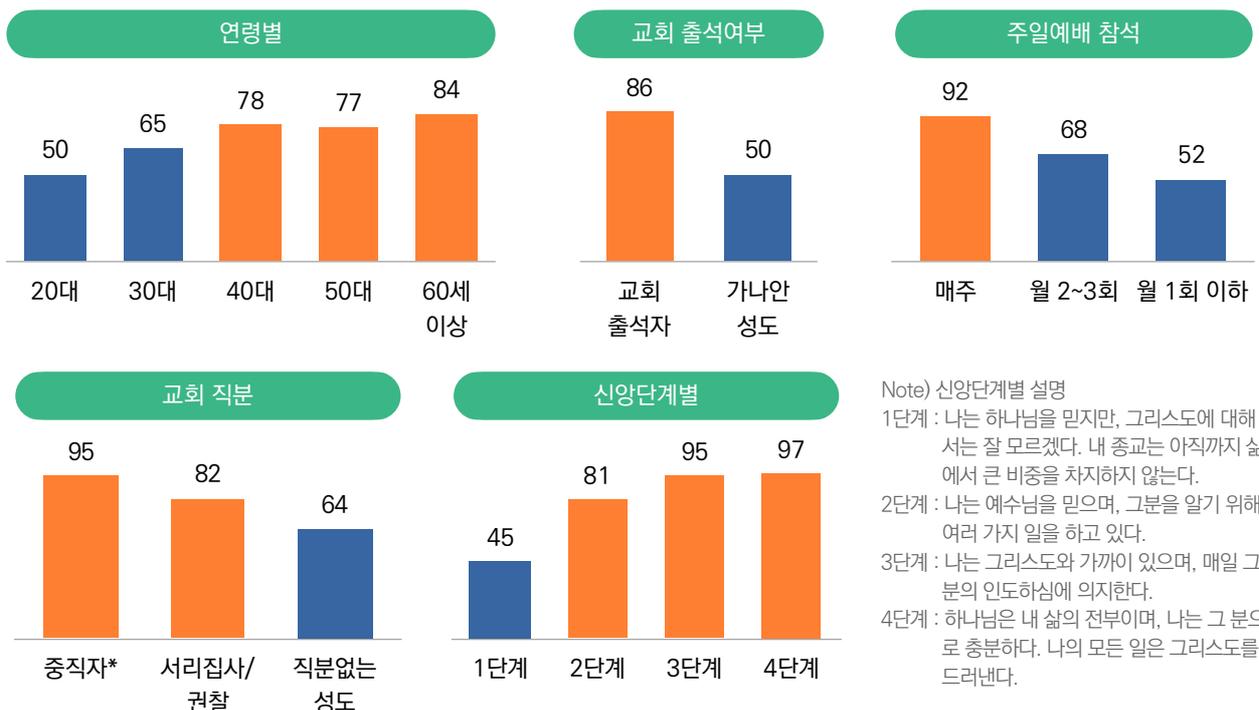


### 전통적 신앙 유형 특징,

#### ① 연령대 ↑ ② 매주 주일예배 참석 ③ 중직자 ④ 신앙수준 ↑!

- 앞서 한국 기독교인의 77%가 전통적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현대적 유형과 비교했을 때, 전통적 신앙 유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회 출석자', '주일예배 매주 참석자', '중직자', '신앙수준 상층'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 '권위적', '초월' 유형 역시 '전통적' 신앙 유형(고연령층, 교회출석자, 중직자 등)과 대체로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그림] 전통적 신앙 유형의 세부 특성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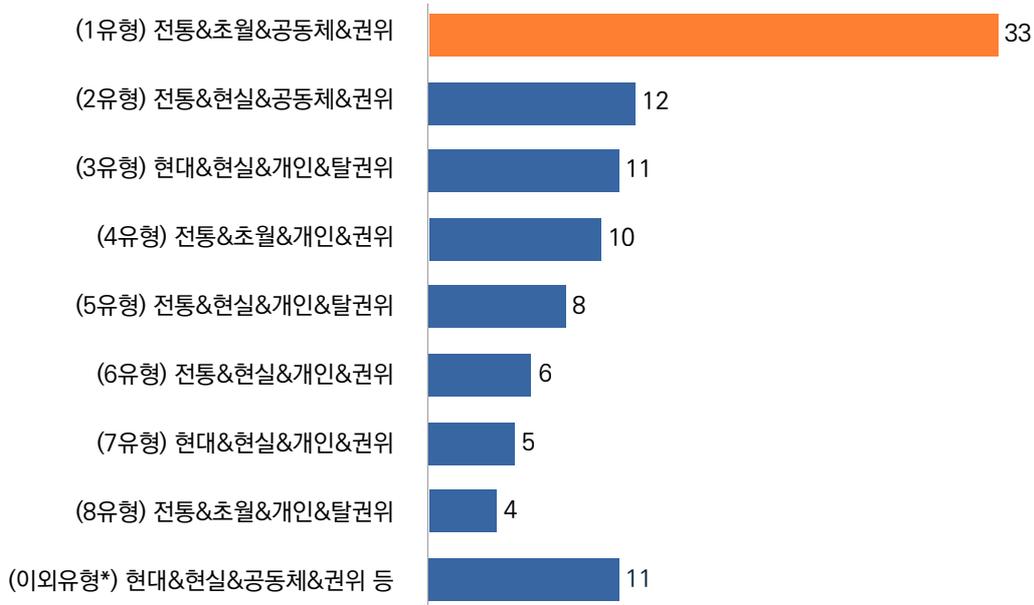
Note) 신앙단계별 설명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안수집사/권사, 장로 등 포함

##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신앙 유형, ‘전통&초월&공동체적&권위’!

- 4쌍의 변수를 조합한 16가지 세부 유형을 살펴본다. 먼저 한국 기독교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유형은 ‘전통&초월&공동체&권위’로 33%, 즉 3명 중 1명꼴이었다. 두 번째(2유형)는 초월-현실만 다른 ‘전통&현실&공동체&권위’(12%), 세 번째 유형은 1유형과 모두 정반대인 ‘현대&현실&개인&탈권위’(11%)였다.
- 1유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큰 차이 없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신앙 지형이 교회 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세부 유형 비율 (기독교인, %)



\*나머지 8가지 유형은 사례 수가 적어 8개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외유형으로 분류함

Note) 이하 자료부터는 유형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지 않고(eg. 전통&초월&공동체적&권위 등), 순위에 따라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등으로 표기함

# 1유형: 전반적 신앙지표 높은 보수/고연령층 ↔ 3유형: 신앙지표 낮은 가나안/저연령층 성도!

- 세부 유형 중 1유형과 3유형 즉,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전통&초월&공동체&권위'와 1유형과 정반대이면서 3번째로 높았던 '현대&현실&개인&탈권위'를 비교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다.
- 1유형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회 출석자, 주일예배 매주 참석자, 중직자, 높은 신앙단계, 기독교 가정,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에서 더 두드러졌다. 반면 3유형은 '연령이 낮을수록', '가나안 성도', '비기독교 가정', '낮은 신앙 단계'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유형과 3유형 비교 (기독교인, %)

구분		1유형 (전통&초월&공동체&권위)	3유형 (현대&현실&개인&탈권위)
전체		33	11
연령	20대	16	<b>22</b>
	30대	23	18
	40대	32	13
	50대	33	8
	60세 이상	<b>40</b>	7
교회 출석여부	교회 출석자	<b>42</b>	6
	가나안성도	8	<b>24</b>
주일예배 참석	매주	<b>47</b>	4
	월 2~3회	22	12
	월 1회 이하	13	<b>24</b>
교회 직분	중직자	<b>52</b>	2
	서리집사/권찰	39	8
	직분없는 성도	20	<b>17</b>
신앙단계	1단계	10	<b>25</b>
	2단계	32	6
	3단계	48	4
	4단계	<b>52</b>	2
가족 종교 여부	기독교 가정	<b>40</b>	7
	혼합 가정	25	13
	비기독교 가정	24	<b>23</b>
이념성향	보수	<b>43</b>	6
	중도	31	15
	진보	2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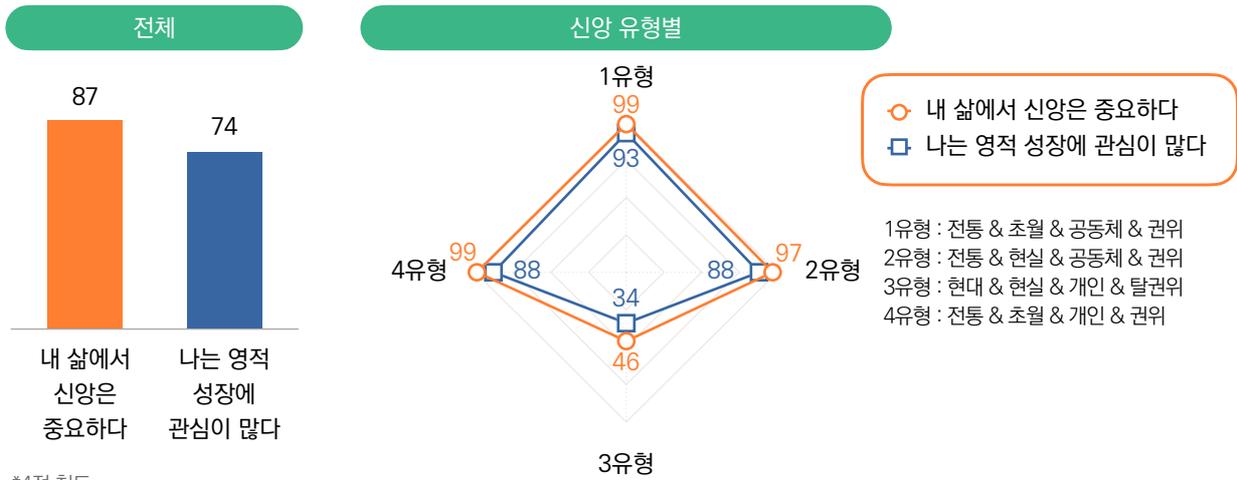
# 02

## [신앙 의식]

### 현대적/탈권위적 신앙 유형, 영적 성장 관심도 떨어져!

- ‘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도’ 각각의 동의율을 살펴본다. 먼저 ‘내 삶에서 신앙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7%로 3유형(46%)을 제외한 1,2,4유형은 거의 100%에 가까운 긍정률을 보였다.
- ‘나는 영적 성장에 관심이 많다’에도 3유형의 동의율은 30%대에 불과한 데 반해 1,2,4유형은 앞선 신앙의 중요성 인식과 비슷한 패턴(80~90%대의 높은 동의율)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현대적, 탈권위적 유형층에서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신앙의 중요성 및 영적 성장 관심도 (기독교인,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4점 척도

### 현대적/탈권위적 신앙 유형, 사회 참여 강하고 복음 전도 약해!

- ‘나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복음 전도에 적극 참여한다’와 ‘나는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에 참여한다’에 대한 각각의 동의율을 상위 4개 유형별로 살펴본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도 참여(42%)에 대한 동의율이 사회적 참여(56%)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전도 참여’ 동의율은 1,2,4유형에서는 절반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으나 3유형은 16%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사회적 정의 참여’에는 타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3유형에서도 절반 가까이(46%) 긍정률을 보인 점이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현대적/탈권위적 신앙 유형자들에게서 사회 참여는 강한 반면, 복음 전도 참여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전도 참여’와 ‘사회 정의 참여’ 동의율 비교 (기독교인,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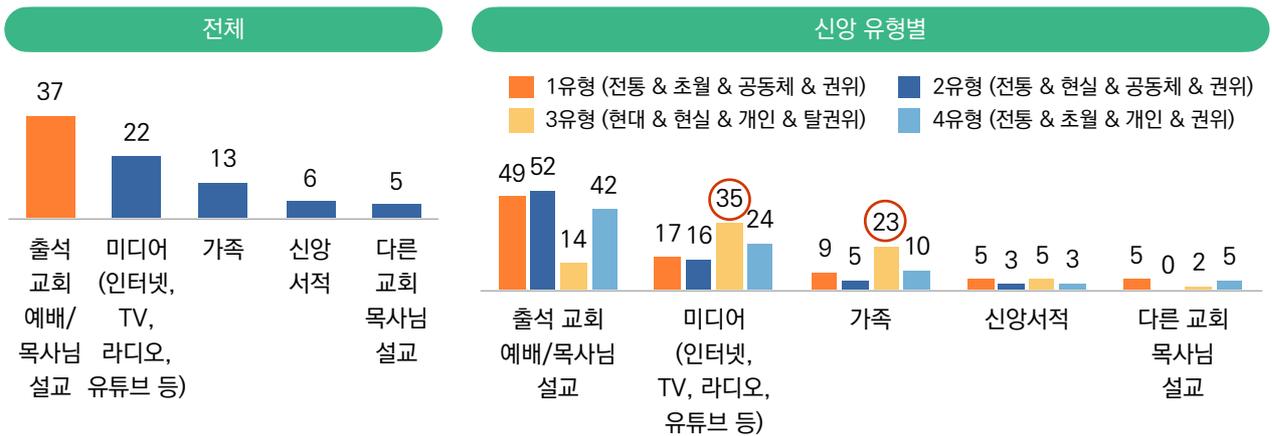
# 03

## [신앙생활]

### 신앙성장도움, 3유형은 '목사님 설교'보다 '미디어 가족' 영향더 커

- 자신의 신앙 성장에 가장 크게 도움을 받는 것에 관해 물은 결과, '출석 교회 예배/목사님 설교'가 10명 중 4명 가까이(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디어'(22%), '가족'(13%) 등의 순이었다.
- 전체 신앙 유형 중 11%를 차지하는 현대&현실&개인&탈권위(3유형)의 경우 신앙 성장의 도움 요인으로 '미디어'(35%)와 '가족'(23%)을 높게 꼽아 출석교회의 예배/설교(14%) 영향은 미미했고, '미디어', '가족'에 대한 영향 및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것 (기독교인,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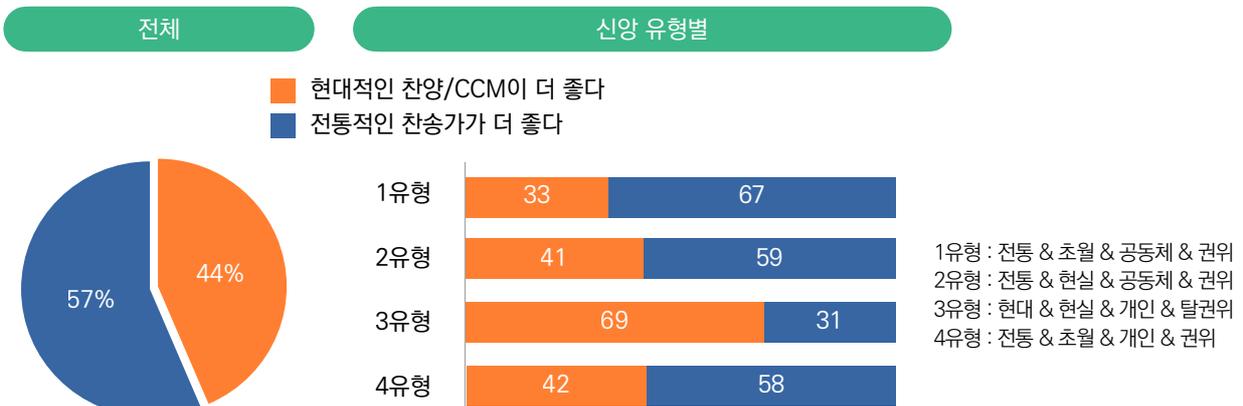
# 04

## [기독교 이슈 인식]

### 선호하는 찬양 유형, 3유형, 현대적 찬양/CCM 선호도 높아

- 선호하는 찬양 유형을 물은 결과, 전통적인 찬송가를 부르는 것(57%)을 현대적인 찬양/CCM(43%)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앙 유형별로 보면 전통과 현대 신앙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전통 유형이 포함된 1,2,4유형의 기독교인의 경우 10명 중 6명가량이 전통적인 찬양을 더 좋아했으나, 현대 신앙 유형(3유형)은 70% 정도가 현대적인 찬양을 선호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2030 젊은 세대는 현대적인 찬양(20대 64%, 30대 73%)을,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전통적 찬양(60세 이상 74%)을 선호해 연령에 따른 차이도 확인했다.

[그림] 선호하는 찬양\*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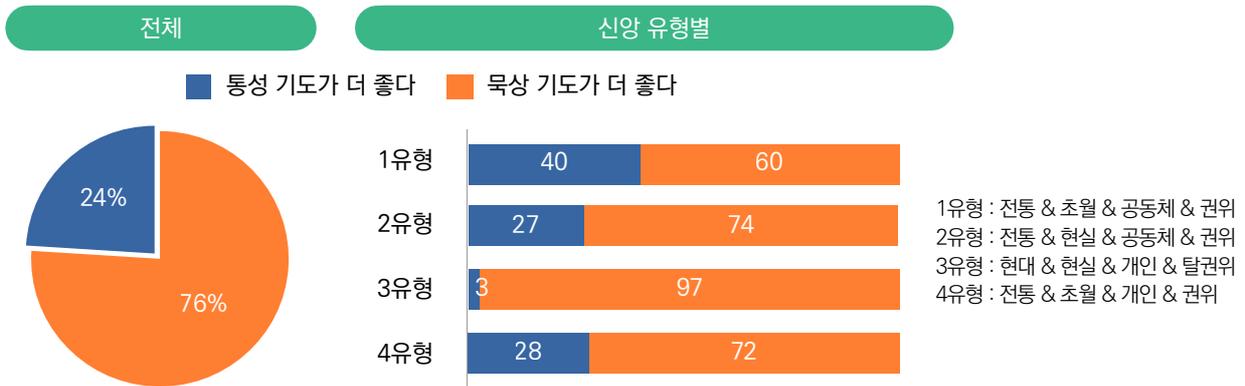


\*4점 척도

## 전 신앙 유형에서 ‘통성 기도’보다 ‘묵상 기도’ 선호도 높다!

- 통성 기도와 묵상 기도 중 어느 기도를 더 선호하는 지 물었다. 묵상 기도를 선호하는 비율(76%)이 통성 기도(24%)보다 3배 이상 높게 응답됐다.
- 1유형이 타 유형 대비 통성 기도 선호 비율이 10명 중 4명꼴로 비교적 높았고, 반대로 3유형의 경우 거의 대다수(97%)가 묵상 기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선호하는 기도\* (기독교인, %)



\*4점 척도

## 이번호 요약

### 1.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유형, '전통적/권위적' 압도적!

-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유형 4가지 변수를 보면, 전통적-현대적 중 '전통적 신앙'이(77%), 권위적-탈권위적에서는 권위적(72%)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 초월적-현실적(각각 53%, 47%)과 공동체-개인(각각 54%, 46%)은 비슷한 수준 혹은 큰 차이가 없었다.

### 2. 현대적/탈권위적 신앙 유형, 영적 성장 관심도 떨어져!

- '나는 영적 성장에 관심이 많다'에 관해 1,2,4유형은 80~90%대의 높은 동의율을 보인 반면 3유형(현대&현실&개인&탈권위)은 34%에 그쳐 전체적으로 현대적/탈권위적 유형층에서 영적 성장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 3. 신앙 성장 도움, 3유형은 '출석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미디어/가족' 영향 더 커!

- 신앙 성장 도움 요인으로는 '출석 교회 예배/목사님 설교'(37%)가 가장 많았는데 3유형의 경우는 예배/설교(14%)보다 미디어(35%), 가족(23%) 영향이 높아 주목된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다양한 신앙의 얼굴들 : 개인적 소감 (송인규 소장, 한국교회탐구센터)

## 관련 성경 구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전 12:4~6)

## 목회 적용점

이번 한국 기독교인 유형 연구 조사 결과에서 보면 한국 교회 내 다양한 신앙 유형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전통&초월&공동체&권위'로 33%였고, 이와 정반대인 '현대&현실&개인&탈권위'(11%)는 세 번째로 많았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함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는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기에 앞서 두 유형 간 특성(p.7)을 비교적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다시 말하지만 성도 간, 성도와 목회자 간 의견을 나눌 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다양성의 차원에서 소통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16개 유형 중 상위 8개를 뺀 나머지 8가지 소수 유형이 전체의 11%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러한 소수 집단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다양한 부류의 지체들이 하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점을 인식하여 성도들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목회자들에게는 성도들을 하나의 무리가 아닌 개별적으로 쫓아서 보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성도의 생각과 요구, 신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신앙 유형 특성을 반영한 목회적 적용으로는 가령 가나안 성도와 젊은 세대가 비교적 많은 3유형(현대&현실&개인&탈권위)의 경우는 신앙 훈련을 위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2유형(전통&현실&공동체&권위)의 성도에 대해서는 교회 봉사 업무를 독려하여 교회 소속감 등을 높일 수 있다.